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랙티브 주중 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톱 10’에 8명이 올랐으나 우승자가 나오지 않아 서운한 ‘한류돌풍’이었다.

2일(이하 한국시간)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파인스의 파인니들스골프장(파71·6천616야드)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순위표 및 줄은 온통 태극기로 장식됐다.

US여자오픈골프 ‘한류 돌풍’

정상은 놓쳤지만 톱 10에 무려 8명 진입... 크리스티 커 우승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19)이 공동 2위, 박세리(30·CJ)와 박인비(19)가 공동 4위, 신지애(19·하이마트)는 6위, 이지영(22·하이마트) 7위, 그리고 김미현(30·CJ)과 장정(27·기업은행)이 공동 8위를 차지하고 배경은(22·CJ)이 공동 10위에 턱걸이하는 등 모두 8명이 ‘톱 10’에 올랐다.

사흘 내내 리더보드 상단을 오르내리던 ‘코리언 시스터스’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의 주역이었으나 우승 트로피는 통산 9승을 올린 베테랑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넘겨줘 ‘화룡점정’은 이루지 못했다.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때린 박세리는 4라운드 합계 2언더파 282타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연속 3타씩을 줄인 박세리는 시즌 다섯번째 ‘톱 10’을 US여자오픈에서 이뤄내 슬럼프 탈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사흘 내내 우승을 다했던 안젤라 박의 성과도 눈부셨다. 3라운드에서 3타를 잃어버렸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우승자 커에 2타 뒤진 준우승(3언더파 281타)을 차지한 안젤라 박은 27만1천달러의 상금을 받아 상금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공동 5위에 이어 메이저대회에서 연속 ‘톱 5’에 오른 안젤라 박은 결출한 동갑내기 신인들 틈에서 반짝 활약이 아닌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며 신인왕 수상을 사실상 굳혔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2002년 US여자주니어 선수권대회를 제패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박인비는 2타를 줄이면서 데뷔 이후 첫 ‘톱 10’을 메

이지대회에서 달성했다.

우승까지 바라봤던 신지애는 3오버파 74타를 치는 부진 끝에 6위(이븐파 284타)로 내려 앉았지만 시즌 첫 메이저대회 나비스코 챔피언십 공동 15위를 뛰어넘어 자신이 세운 목표를 거머쥘 일궈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가려내기 위해 까다롭게 세팅한 코스에서 신지애는 드라이브샷 비거리 9위(259.25야드), 페어웨이 안착률 공동 3위(82%), 그린 적중률 공동 8위(68%), 퍼팅 개수 39위(1.69개)의 수준급 실력을 과시해 미국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스타투어 3차대회를 마치고마자 대회 이틀 전에 대회장으로 달려가는

빠박한 일정을 소화했던 신지애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4일 개막하는 코리아아트빌리지오픈에서 시즌 5승에 도전한다.

이지영은 이븐파 71타로 잘 버텨 최종 합계 1오버파 285타로 ‘톱 10’에 합류했고 1타를 줄인 김미현과 2타를 잃은 장정도 합계 2오버파 287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배경은은 1언더파 70타를 때려 3명의 공동 10위(3오버파 287타)에 합류했다.

기대와 달리 우승 경쟁은 중반부터 커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렀다. 신지애와 모건 프레스레이 우승다툼에서 떨어져 나오자 올해 11번째 투어를 뛰고 있는 노련한 커는 차분하

게 타수를 지키는 전략으로 선수를 고수했고 한때 공동 선두로 올라선 오초아가 자멸한 틈을 타 손쉽게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커는 오초아와 공동선두를 달리던 14번홀(파4)에서 5m 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선 뒤 17번홀(파4)에서 1타를 잃은 오초아를 2타차로 따돌렸다.

3라운드에서 66타를 뿜어낸 선두를 꺾던 데 이어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친 커는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로 통산 열번째 우승을 생애 첫 메이저대회 제패로 장식했다.

특히 커는 1995년 17세의 아마추어 선수로 US여자오픈에 출전한 이후 41차례 메이저대회에 나섰지만 한번도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한을 풀었다.

이븐파 71타를 친 오초아는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안젤라 박에게 공동 준우승까지 허용하며 ‘메이저 무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US여자오픈에서 항상 별도로 상을 주는 ‘최우수 아마추어 선수’도 ‘코리언 시스터스’의 몫이었다.

한국 국가대표 주장인 송민영(18·대전국체고)과 미국 아마추어골프의 강자 제니 리(19)가 나란히 10오버파 294타로 공동 39위에 올라 아마추어 가운데 최고 성적을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불을 지켜라”

베어백호 아시안컵 대비
실전 방불 전술훈련 돌입

2일 오전 뿌연 안개비가 흩뿌리는 파주 NFC. 달콤한 주말 휴가를 보낸 23인의 태극전사들이 미끄러운 그라운드에서 핏 베어백 감독의 쏟아지는 질타와 격려 속에 거본숨을 몰아넣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부근에서 드로잉 상황. 김동진(제니트)이 불을 던졌지만 공격수에게 연결되지 않고 이내 수비수가 멀리 걷어냈다.

최근 베어백 대표팀 감독이 ‘불 스톱’을 의인된 뒤 “1-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불을 상대에게 내주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공격진들을 따끔하게 혼냈다.

베어백 감독이 2007 아시안컵축구 개막을 코앞에 두고 본격적인 파주NFC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황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5년 전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연습경기 때마다 특정한 경기 상황을 설정한 뒤 선수들이 해결책을 찾게 했던 시뮬레이션 훈련을 도입한 것.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파주NFC에서 가벼운 패스훈련으로 몸을 풀 태극전사들은 11대11로 나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훈련을 1시간 넘게 실시했다.

베어백 감독은 선수들을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4-3-3’과 ‘4-4-2’ 전술로 대항을 짚 뒤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연습경기를 시켰다. 최전방에는 이동국(미들즈버러), 조재진(시미즈), 우성용(울산)이 번갈아 투톱과 원톱으로 나서 호흡을 맞췄고, 김정우(나고야)와 김두현(성남)도 서로 조끼를 바꿔 입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다.

베어백 감독은 20분씩 이어진 세 번의 연습경기에서 공격-미드필더-수비 조합을 계속 바꾸면서 적임자를 찾는 데 주력했다.

이날 파주NFC에서 시작된 2차 전지훈련은 철저히 인도네시아 현지를 가상해서 진행한 게 특징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덥고 습한 만큼 체력소모를 줄이겠다는 게 베어백 감독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평가전(5일 밤 8시)을 앞두고 소집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2일 오전 파주NFC에서 열린 훈련에서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위창수 톱 10 실패

PGA 뷰익오픈 공동 16위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오픈에서 아쉽게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위창수는 2일(한국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의 위윌스홀스골프장(파72·7천1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였지만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16위에 자리했다.

우승컵을 올 시즌 상금랭킹 200위 밖을 뺀 돌던 ‘무명’ 브라이언 베이트먼(미국·15언더파 273타)에게 돌아갔다.

공동 24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위창수는 3번홀(파3)부터 5번홀(파4)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낚는 등 전반에만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이며 올 시즌 두번째 톱10 진입을 노렸지만 후반에 1타도 줄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나상욱(23·코브라골프)은 이븐파를 쳐 공동 34위(8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끝냈다.

“삼바축구 꺾을 비책있다”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리틀 태극전사’가 4일 오전 8시45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강호 브라질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앞두고 자신감으로 활활 뿜었다.

역대 이 대회에서 5차례 맞붙어 모두 패배를 안긴 브라질이지만 이상호는 “이번이 승리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막과 역습 타이밍이 좋았던 미국전처럼 하면 브라질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라면서 “처음엔 비기지만 해도 좋다면 동료도 폴란드전을 지켜본 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고 전했다.

미국전에서 골대를 맞힌 공격수 심영성(제주)은 먼저 “그 장면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다. 이겨야 할 것 같아서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비겨 아쉬웠다”면서 “하지만

이제 미국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심영성 역시 “브라질은 생각보다 강팀은 아닌 것 같다. 내 자신은 물론 팀도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폴란드처럼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을 좁혀 브라질의 개인기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찬스만 잘 살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감으로 똘똘 리틀태극전사들이 세계 4강 목표의 1차 관문인 조별리그를 통과하려면 브라질전에 이어 폴란드와 3차전까지 남은 두 경기에서 반드시 1승을 거둬야 안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24개국에 참가해 4개 팀씩 6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그러다 보니 16강 티켓은 각 조 1, 2위 팀 외에 3위 중 성적이 좋은 네 팀에도 돌아간다. 조 3위를 차지할 경우 다른 조의 결과도 신경

써야 한다. 16강 진출 교두보는 승점 4점이다. 물론 승점 3점을 얻어도 16강 진출의 길은 열려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03년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대회 때 1승2패를 거두고도 조 3위로 16강에 올랐다. 하지만 3점은 불안하다. 한국은 2005년 네덜란드 대회에서는 똑같이 1승2패로 조 3위를 차지했지만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A조의 일본은 배병, 호주와 나란히 승점 2점(2무1패)만 얻고도 골득실차로 조 2위를 차지, 눈치 보지 않고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해 한국의 속을 더욱 쓰라리게 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그런 요행수를 다시 바라볼 수는 없다.

한국 U-20월드컵 대표팀
내일 브라질전 승리 자신
암막·역습으로 골 노려

‘피겨 라이벌’ 김연아·아사다
14일 일본 요코하마서 대결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17·군포 수리고)와 아사다 마오(일본)가 4개월 만에 같은 프리저스케이팅 무대에서 기량을 뽐낸다.

김연아의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는 2일 “김연아가 14일부터 일본 신요코하마 프린스호텔 스케이트센터에서 열린 ‘드림스 온 아이스쇼’에 참가한다”며 “새로운 쇼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저스트 어 걸(just a girl)’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케이팅신문이 주최하고 일본빙상경기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아이스쇼에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여자랭킹 1위 아사다와 3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싱글 우승자 안도 미키(일본)를 비롯해 ISU 남자랭킹 1위인 다카하시 다이스케, 스페인 람비엘(남자랭킹 4위) 등이 참여한다.

특히 꾸준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연아와 아사다는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4개월 만에 같은 무대에 서게 됐고, 그동안 해외전지훈련을 통해 쌓은 기량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